청담문도회, 내홍 봉합…“화합·전법 길로”

6월 28일, 청담 대종사 석상 앞
헌향·헌다로 ‘참회’…“수행 매진”
태원 스님 “불사 회향까지 최선”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청담문도 직계 제자 혜자 · 동광 · 광복 스님과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청담문도회 운영위원장 도호 스님이 손을 맞잡고 화합을 다짐했다.

청담문도회가 도선사 중창조인 청담 대종사 석상 조성과 사리탑 주변 성역화 불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청담 대종사의 사상을 계승해 화합과 소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청담문도회는 6월 28일 서울 도선사 청담 대종사 석상 앞에서 헌향·헌다의 예를 올린 뒤 참회문을 낭독하며, 그간의 갈등을 참회하고 수행과 전법교화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청담문도 직계 제자 혜자·동광·광복 스님과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청담문도회 운영위원장 도호 스님을 비롯한 손상좌, 문도 스님들이 참석했다.

청담 대종사 석상 재조성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발생한 문도회 내 갈등은 오랜 기간 이어졌으나, 수차례 협의와 소통 끝에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대립을 멈추고 봉합의 길로 전환됐다. 특히 태원 스님은 6월 23일 문도 간 제기했던 고소 사건과 종단 호법부에 제출했던 진정을 모두 취하하며 갈등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도안사 회주 혜자 스님은 문도 대표로 발표한 참회문을 통해 “청담 대종사 사리탑 주변 성역화 사업과 새로운 석상 조성 불사 추진과정에서 원융화합과 소통의 가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종단과 교계 안팎에 갈등의 모습이 드러나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청담 대종사의 사상을 선양하고자 불사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소통 부족과 성찰 없는 판단으로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 과정에서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의 명예에 누가 되고, 직계 제자 및 문도 스님들 간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혜자 스님은 참회와 실천으로 더 성숙한 문도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스님은 “청담 대종사가 불교와 종단을 위해 품은 큰 뜻을 되새기며 갈등을 소통과 화합의 지혜로 풀어내겠다”며 “실추된 승풍을 회복하고 청정 도량의 품격을 되찾기 위해 참회 기도를 이어가는 등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자정(自淨)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혜자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수행자 본분을 지켜나가고 청담 대종사 선양 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쳐가겠다”며 “도선사가 수행·참회·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그간의 갈등에 대해 참회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태원 스님은 “청담 대종사 성역화 불사를 위해 염려와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의 뜻을 총도감으로서 제대로 받아 안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태원 스님은 이어 “얼마 전 문장 법화 대종사께서 ‘큰 불사에는 마장이 따르고, 그것 또한 불사를 맡은 이가 안고 가야할 일이다. 큰스님 석상의 환지본처를 계기로 과거 도선사가 화합하던 모습으로 돌아가 불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다”며 “그 말씀을 듣고 문도회 운영위원장 도호 스님이 중간 역할을 해줘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태원 스님은 “제 불찰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직계 제자 스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불사가 회향되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스님들은 보존처리를 마친 새 석상 앞에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고, 문중 화합과 정진을 다시금 다짐했다.

INEB 활동가, 진우 스님 예방…“인류 평안 위한 교류 함께”

법륜 스님 등 6개국 15명 동참
“인류 전법 활동, 조계종 협력”


국제참여불교연대 활동가들이 7월 3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인류평안을 위한 교류를 약속했다.

세계불교 NGO 연합체인 국제참여불교연대((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INEB)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인류 평안을 위한 국제 불교교류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INEB 소속 활동가들은 7월 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진경 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스리랑카·태국·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등 6개국 스님 및 활동가 15명이 함께했다.

법륜 스님이 각국에서 온 스님들을 소개하자 진우 스님은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건내고 “불교의 목적은 성불이고 세계적, 역사적으로 불교만큼 평화로운 종교가 없다”면서 “세계 인류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륜 스님을 중심으로 지역과 인종, 문화를 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종단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격려했다.

스리랑카 갈칸데 다마난드 스님(와폴라 라훌라 연구소장)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공동체 안에서 작은 시야로만 활동했을텐데,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예방 후에는 조계사 불교대학 2층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이어갔다. 간담회에서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조계종 운영 비전과 이해’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선’명상과 ‘젠’명상의 차이점과 출가자 감소 대응 등에 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졌다.

INEB는 1989년 태국의 슐락 시바락사를 중심으로 불교 및 사회활동가 그룹에 의해 설립된 단체다. 아시아, 유럽, 북미 및 호주 등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사회적 행동과 불교의 실천을 통합하는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정토회와 법륜 스님은 INEB 가치와 활동에 공감해 창립 초기부터 주요 멤버 단체 중 하나로 활동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김민석 ‘종교 인식’ 검증 못 한 청문회

차별금지법–종교편향 질의 無
성경 읽은 박선원은 ‘사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종교편향적 인식과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을 끝내 검증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청문회장에서 성경을 읽어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은 언론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6월 24~25일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란이 된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적 종교 인식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는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진보당과 민주노동당은 청문회 후 “‘차별금지법’에 관해 질의하지 않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공직자가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성경을 꺼내 읽어 불교계로부터 ‘정교분리 위배’라는 비판을 받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계에서 불편했던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인권위원회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촉구한 공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조계종 종평위가 요청한 △국회와 각 정당, 공직자는 공적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과 헌법상 종교 자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종교편향적 언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줄 것 등의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종교적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기독교 사학을 옹호하는 등 종교편향적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수령 기자

불교영적돌봄協 설립…”활동가 양성 매진”

6월 27일, 창립이사회 개최
병원법당 운영모델 개발 추진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영적 안정을 지원하는 불교계의 영적돌봄 활동이 본격화된다.

전국비구니회 소속 불교영적돌봄연구소는 서울시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불교영적돌봄협회’를 설립하고, 6월 27일 창립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회 설립은 지난해 6월 14일 발족한 ‘불교영적돌봄가협회’를 기반으로 외연 확대와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 결과로, 정부가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임종기 환자를 위한 영적돌봄 인력 양성과 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을 차원이다.

협회장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전 회장 본각 스님이 맡았고 현 회장 광용 스님, 종회의원 철우 스님, 불교영적돌봄연구소장 지인 스님, 그리고 현직 의료인 등 총 5인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협회는 생애말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돌봄을 제공할 불교 영적돌봄가 양성과 교육, 현장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문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영적돌봄가의 역량 강화도 함께 도모한다.

협회는 첫 사업으로 백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병원법당 운영모델 개발에 나섰으며, 서울의료원 병원법당이 제1호 시범 모델로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서울의료원 법당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기도 공간과 상담 공간을 분리해, 보다 심리적 안정과 영적 위안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2020년 6명의 스님들과 자비실천 병원포교단을 결성해 병원포교에 앞장서온 지인 스님은 “병원 내 포교 환경이 아직은 많이 열악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호스피스와 영적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불교계도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시대에 발맞춰 영적돌봄 활동가를 양성하고 교육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위안과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